

Architecture

Architectural Review

Architectural Record

a + u

건축문화

신건축

Architecture

2000년 2월호

이번호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건축가들의 '현대 건축'을 소개하였다. 현대의 디자인 흐름을 각기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작품들을 개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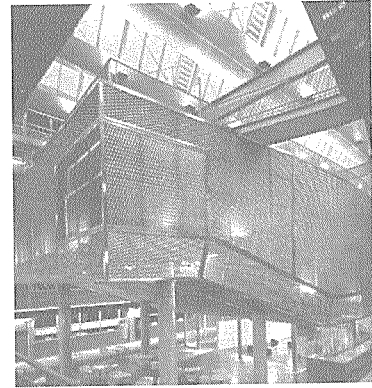


■ 근작소개

21세기의 현대 건축은 건축적 형태나 건물 유형이 중성적이며 단순한 결합에서 의미가 가득한 관용법으로 전이되고 있다. Thom Mayne의 Hypo Alpe-Adria-Center와 Bernard Tschumi의 파리 건축학교는 모더니즘의 관습을 해체하고 이용한다. Mayne은 불확정성의 현대적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위해 그의 건축에서 휘고 부러뜨리고 층을 만들어낸다. Tschumi는 인간 반응의 복잡성을 드러내기 위해 포개어진 브리지, 캐워크, 계단을 주로 이용한다. Arata Isozaki의 오하이오 콜럼부스에 위치한 Center for Science & Industry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영도에 가까운 표현 방식을 택한다. 물리적, 지각적으로 용이하게 인식되는 것을 거부하고 달린 기념비적 형태를 차용하였다.

▶ Bernard Tschumi의 Marne-La-Valée 건축학교

Tschumi는 런던 AA School에서 18세기 Georgian Terrace의 미로적 공간에 대해 연구했다. 이것은 후에 그의 건축에서 비정형적인 in-between space의 중요성을 진작시켰다. 이러한 공간은 학생들이 만나고 그들의 의견을 교환하는 장이 된다.



Bernard Tschumi의 Marne-La-Valée 건축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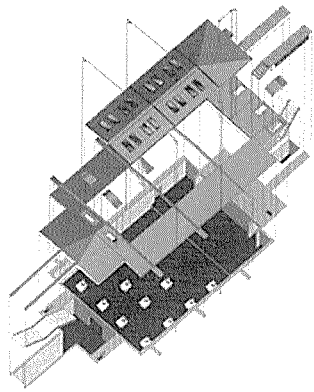
건물의 구성은 단순하게 되어 있다. 두 개의 원이 가운데 아트리움을 만들어 내며 그 중앙에 오디토리움 볼룸이 어긋나게 배치되어 역동성을 만들어 내고 있다. 메쉬로 마감된 매달려 있는 오디토리움 볼룸 아래의 in-between space에서 학생들의 만남과 사교의 장이 형성된다.

▶ Arata Isozaki의 오하이오 콜럼부스, Center for Science & Industry

이 디자인은 건축 형태의 보편성과 지역적 상황의 반영이 동시에 충족될 수 있는 지의 의문을 불러 일으킨다. 비행선과 같은 형태는 강가라는 지형에 여유있게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혼성적인 주변 경관에 대하여 단일한 매스로 신비로운 인상을 만들어 낸다. 형태와 내용물 간의 관계, 형태와 장소의 관계가 빚어내는 긴장은 이 시설의 관장인 Katherine Sullivan의 다음과 같은 언술,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여기 콜럼부스에 있지만 과학은 지역적인 문제를 벗어난다."에 바탕을 두고 있다. 반면에 이소자키는 이러한 초월적 형태를 대지의 바로 앞에 흐르는 Scioto 강에 대응함으로써 사이트와의 연관성으로부터 도출하였다.

▶ Bernard Khoury Architects의 베이루트 지하 바 B 018

한때 격리된 장소였던 항만 근처의 이 지역에 전쟁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지하 바가 지어졌다. 17년간의 내전으로



베이루트 지하철 B018

보호공간으로서의 지하공간은 전쟁미학의 표현이 된다. 건물을 가운데 두고 원형으로 주차를 하게 되는 배치를 하여 차의 헤드라이트가 지하 바의 천창으로 흘러들어 가도록 디자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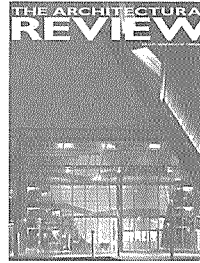
▶ Van Berkel & Bos의 암스테르담 Hetvalkhof 박물관

네덜란드의 고고학 유물을 전시하는 곳으로서, UN Studio는 이 건물에서 고전적인 질서와 현대적인 복합성 사이의 중간적 방식을 사용하였다. 일례로 서측 파사드의 처리에서 교묘히 조작된 유리면의 수평 리본은 4개층의 입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2층 건물이 파사드 뒤에 존재하는 것이다. 대지는 고대 로마의 첫 번째 정착지였던 곳으로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곳이다. 건축가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도시와 랜드스케이프 사이의 게임을 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 해결방안을 단순한 박스에서 찾았다. Van Berkel & Bos는 이러한 단순한 형태의 수평 띠는 정보의 흐름이라 불렀으며, 그 정보는 건물의 프로그램과 빛 환경을 결정하는 대지로부터 추출되는 모든 것이라 하였다.

Architectural Review

2000년 2월호

이번호는 도시광장이나 고속도로의 환경조형물 등 랜드스케이프건축을 다뤘으며, 집합주택을 비교적



자세히 소개하였다. 근작으로 Sarc Architecture의 미디어 빌딩을 헬싱키의 도시적 컨텍스트와 관련지어 소개한 기사가 눈에 띈다.

■ 랜드스케이프 건축

▶ West8의 Tilburg 도시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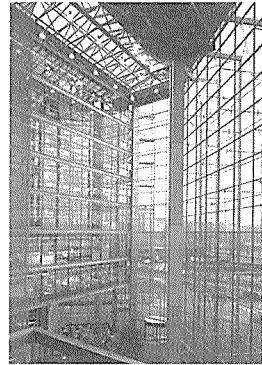
버려진 도시 사이트에 활기를 부여하는 랜드스케이프 프로젝트에서 명성을 얻은 Adrian Geuze의 West 8가 도시중심부의 정원계획에 초청되었다. Tilburg의 중앙역 근처의 거대한 삼각형 대지에 조성된 이 공원은 다른색과 텍스처로 이뤄진 판들이 엮물리게 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 Denton Corker Marshall의 멜버른 고속도로의 게이트웨이

멜버른의 도시 외곽을 잇는 고속도로에 장소성과 도시로의 진입을 상징하는 구조물이 세워졌다. 도시의 스케일에 맞는 이 진입 조형물은 단면이 5m²에 이르며 70m 길이의 캔틸레버형태로 길 양쪽에 늘어서 붉은 벽과 연결된다. 근대도시는 계속 확장하고 유동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나 도시의 외곽에 이러한 상징적인 조형물을 세움으로서 다른 도시로의 진입을 상징하는 경계부임을 암시하고자 하였다. 거대한 스케일이지만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차안에서 인식되도록 디자인되었다. 300m길이의 터널은 도로의 소음을 차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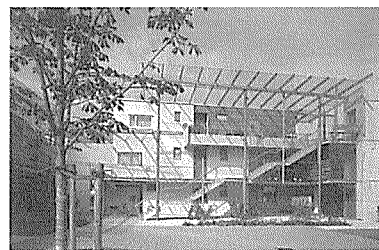
■ 근작소개

▶ Sarc Architecture의 헬싱키 미디어 빌딩



헬싱키의 중심부는 신 고전주의 양식의 건물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항구쪽으로 내려오다보면 근대 건축가들의 건물이 오브제처럼 들어서 있다. 사아리넨의 국립 박물관, 알토의 핀란드아홀이 국회의사당 주위로 다소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 반대편이 공원으로 조성되면서 최근에 들어선 두 개의 건물이 이 지역을 정리해 나가고 있다. 그것은 스티븐 홀의 Kiasma 미술관과 이 미디어 빌딩이다. 형태적으로는 서로 대조를 이루는데, 전자는 감각적으로 유연한 곡선을 이루며 불투명하다면, 이 건물은 도시의 그리드 조직에 맞춰서 투명한 매스로 이뤄졌다.

▶ Günter Behnisch의 독일 Ingo-Istadt Hollerstauden의 공동주택



이 주거단지는 도시도 시골도 아닌, 장소성을 지니지 못한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서 그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 이 단지는 최수자들을 위한 아파트 60호와 그 가족들을 위한 테라스형 아파트 30호, 그리고 학생 주거 단지로 구성된다. 저예산으로 계획되어져서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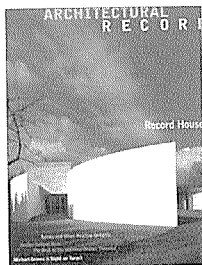
싼 재료와 단순한 디테일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굳어 베니쉬는 그러한 여건 속에서도 비정형과 차이지움이라는 그들의 주제를 전개해 나갔다. 대부분의 건축적인 노력은 파사드와 그 진입부에 집중된다. 엘리베이터와 계단 등의 순환동선의 레이어와 무광의 스틸 포스트가 지지하는 유리지붕과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복도가 파사드를 이루는 주요 요소이다. 외피의 가장 바깥쪽에는 오후의 강렬한 태양광선을 차단하는 기능을 목재 패널이 입면을 분절한다.

그 밖에 ▶영국식 정원의 조형원리에 의해 배치된 듯 다양한 공간과 장소를 만든 Michael Hopkins and Partners의 노팅엄 대학 캠퍼스 ▶Tengnastuen Vandkunsten 외, 스웨덴 Helsingborg 집합주거 ▶Sadar in Vuga의 슬로베니아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 ▶Frechilla & Lopez-Pelaez Architects의 스페인 Arnedo 극장 ▶Demetre Anastassakis 외, 브라질 리오데 자네이로 집합주택 ▶Agnes Couvelas의 그리스 Naxos 고고학 미술관 등이 자세히 소개되었다.

Architectural Record

2000년 4월호

뉴 밀레니엄의 새로운 디자인을 개괄해보는 Cooper-Hewitt 디자인 박물관의 전시회를 집중적으로 다뤘으며, 움직임이라는 현대 건축의 개념에 부합하는 주택들을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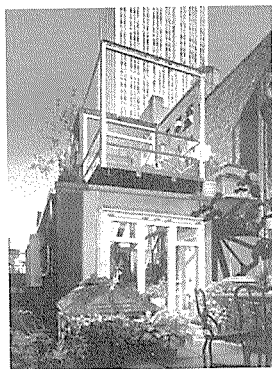


아 소개하였다. 그리고 맨하탄 등의 고층건물 옥탑에 설치된 주택 등이 소개되었다.

■ 뉴욕 Cooper Hewitt 디자인 박물관의 전시 - Design Culture Now

건축에서부터 인테리어, 제품디자인, 타이포그래피에 걸쳐서 현대디자인의 흐름을 보여주는 이 전시회는 디자인의 전망이나 비전을 제시하기 보다는 그 영역의 경계를 보여주려고 있다. 오늘날의 디자인은 구조와 표면이 합쳐지고 있다. 3차원 곡선으로 이루어진 건물이나 인테리어, 제품 디자인은 컴퓨터에 의해 가능해졌다. 디자이너는 형태를 유기적이며 유동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재료, 빛, 정보 그리고 상상력이 뒤섞여서 만들어내는 환경을 조성하는 연출가로서 디자이너는 관객들을 보다 능동적이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경험하도록 한다. 전시회는 유체, 현상, 재생, 지역주의의 테마로 여러 영역의 디자인을 소개하였다.

■ 고층건물 옥탑의 주거용 구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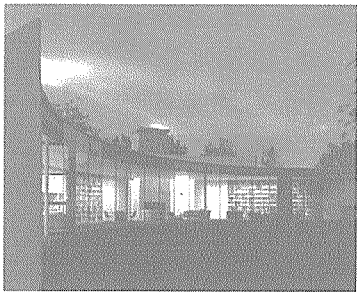


고층건물의 옥탑에는 주로 기계적인 구조물이나 물탱크들이 위치해 왔다. 그러나 도시의 전망이 확보되는 옥탑층에 작은 주택 구조물이 들어서게 되었다. 그 양상은 콘테이너 박스, 통나무집에서부터 정갈한 국제주의 양식의 박스 형태까지 다양하게 고층건물의

꼭대기를 덮고 있다. Lee Haris는 20세기초, 맨하탄에 지어진 만사르 양식의 건물 옥탑층에 철학자의 도서관을 꾸몄다. LOT/EK의 Ada Tolland와 Giuseppe Lignano는 옥탑층의 전통적 의미를 실용주의자의 정원으로 대체하였다. 금속제의 트럭 컨테이너 박스안에 거실과 화장실 그리고 목욕탕이, 박스 위에는 베드룸과 작은 정원이 위치하게 된다. 이 2개층 높이의 구조물 바로 뒤에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의 샤프트가 높이 솟아있다.

■ Record Houses 2000

이번 특집에 소개된 주택들은 거대한 곡면 벽으로 구성되거나, 유체역학적 형태로 짜여지거나, 절벽 끝에 서있는 등 모두 움직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전에 다뤄졌던 다른 프로그램의 건축물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시대의 정신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위의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서 지역 구분없이 선정된 다음의 주택들은 정제된 형태의 절충주의적 조합에서부터 이국적이고 비일상적 형태 등 다양하다. 그리고 그 컨셉은 재료의 사용, 사이팅, 형태 등으로부터 각각 도출하였다. ▶ Albert Kalach의 멕시코 시티 GGG 주택은 콘크리트 판의 맞물림을 통해 구성하였으며, ▶ 영국 스톤헨지 근방 Ken Shuttleworth의 반달형 주택은 매끈한 반원형의 곡면벽 사이로 주거공간이 들어서서, 미니멀리즘한 외관을 보인다. 대부분의 프로젝트에 있어서 평범한 재료들은 풍부하고 감정을 환기시키는 소재로 다뤄진다. ▶ Into Tasa의 핀란드 Espoo에 위치한 Into 주택에서는 환관과 스틸 케이블이 독특한 나선계단을 만들어낸다. 그밖에 거주성의 개념을 재고해보는 ▶ Kennedy & Violich의 Western Massachusetts, 현대미술 갤러리 겸 주택 ▶ David and Vivian Howard의 캐나다 노바스코



Ken Shuttleworth의 반달형주택

시아 Howard 주택 ▶ Wendell Burnette Architects의 아리조나 피닉스, Schall 주택 ▶ Hiroyuki Arima + Urban Fourth의 후쿠오카 현 Ma 주택 등이 자세히 다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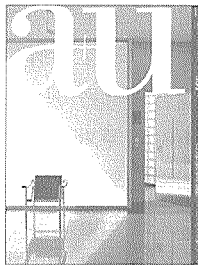
■ 기타

▶ 욕실의 설비적 디자인적 측면을 심도있게 다뤘다. 악취와 습기를 피하는 방법, 따뜻한 실내온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방법, 조명계획, 표면 선택 및 공간 계획 그리고 안전성측면에서 실제 사례와 함께 상세히 기술되었다.

a+u

2000년 3월호

이번 호의 특집은 「스위스의 새로운 지역주의(New Regionalism in Switzerland)」이다. 스위스의 지역주의라고하면 20여년 전의 티치노지방의 '비판적 지역주의 건축가들'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이번에 소개된 건축가들은 그라우뷘덴(Graubünden)주와 그 중심지 쿠르(Chur)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축가들이다. 이들은 유럽의 유행과는 상관없이 자기들만의 수준 높은 건



축들을 지켜가고 있다.

■ 특집 - 스위스의 새로운 지역주의 (New Regionalism in Switzerland)

▶ 쿠르의 건축

20여년 전 스위스가 지역주의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적이 있다. 「비판적 지역주의자」그룹의 건축가들에 의해 스위스의 티치노는 세계적인 건축이 되었다. 이들 건축가들은 명성을 얻을 수록 더욱 인터내셔널한 성향을 갖기도 하였다. 그러나 수 세대가 지나는 동안에도 스위스의 건축가들은 모더니즘과 지역성에 의해 촉발된 건축을 계속하고 있다.

여기 그라우뷘덴주의 또다른 건축가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곳은 마치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사람들은 유럽이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 곳이다. 좋은 건축의 근원은 어디인가? 아카디아의 정원은 어디에 있는가? 정치적인 혼란이 있는 곳이나 번잡한 대도시, 혹은 도회지적 유행을 추구하는 곳에서 이러한 것들은 탄생할 수 없다고 단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그라우뷘덴주의 쿠르는 풍요롭고 수준 높은 건축들이 존재하는 곳이다.

머지않아 쿠르도 티치노처럼 세계로 열려질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이 지역에 특정된 모더니즘의 발아로써, 전원적 순수함으로 알려진 신비한 산악지대, 곧 아카디아의 정원에서 그 기반을 얻고 있는 점이다.

▶작품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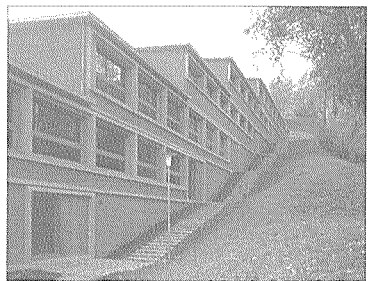
소개된 작가와 그들의 작품들은 돌프 슈네블리(Dolf Schnebli)의 마이어 저택(Meyer Residence), 지드가의 3개의 주택계획(Südstrasse House No.41, No.43, No.45), 로렌쥬 줄리아니 & 크리스찬 흥거(Lorenzo Giuliani & Christian Hönger)의 그



마이어 저택



그라우뷘덴의 관광전문대학



아틀리에가 있는 작은 집

라우뷘덴의 관광전문대학(Grisons College of Tourism), 발렌틴 베아르스 & 안드레아 데프라체스(Valentin Bearth & Andrea Deplazes)의 알바샤인의 학교 (School in Alvaschein), 요나의 주택(House in Jona), 액커만 아키텍트(Ackermann Architekt)의 사이들러 하우스(The Sidler House), 디에터 융링과 안드레아 해그먼(Dieter Jüngling and Andreas Hagmann)의 아틀리에가 있는 작은 집(The Small House with Atelier), 쿠르의 HTA(Chur School of Engineering and Architecture), 학교와 커뮤니티센터의 복합시설(New School and Community Center), 마인라트 몽가 & 하인리히 데겔로(Meinrad Morger & Heinrich Degelo)의 SBB 스위스 연방철도변전소(SBB Transformer Station), 콘라딘 크라보웃트(Conradin Clavuot)의 변전소(Substation Vorderprättigau), 학교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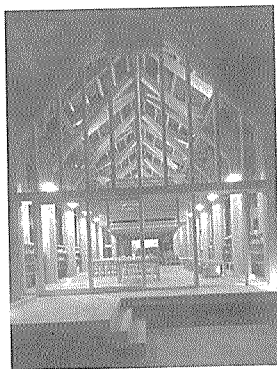
다목적 시설(Seewis, School and Multipurpose Complex) 등이다. 이들의 작품은 세상의 유행과는 상관 없는 듯 모두 미니멀하며 모더니즘에 기반한 것들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스위스의 지역성과 풍광이 녹아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건축문화

2000년 3월호

이번 호는 타케하라 요시지(竹原義二)의 특집 그 두 번째 편이 소개되었다. 10체의 그의 주택 작품을 2-3개씩 묶어 4개의 테마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또한 테마별로 각 테마에 소개된 건축물에 쓰여진 재료나 건축적 주제에 대해서, 기와, 석재 등의 장인과 타케하라와의 인터뷰가 소개되었고, 타케하라 자신의 짧은 글들도 소개되고 있다.

■ 특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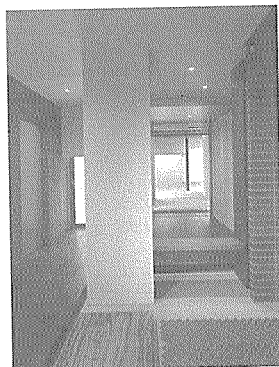
미노리 공방

▶ 타케하라 요시지의 단독주택과 집합주택 프로젝트 10개를 4개의 테마로 묶어 소개하고 있다. 각 테마는 「장

인과 함께 만든다」, 「사이를 연결하다」, 「피막으로 감싸다」, 「장(場)을 읽는다」이다. 「장인가 함께 만든다」에서는 '우미츠바키하야마(海樺葉山)'이라는 여관과 '미노리 공방'이 소개되었는데, 이들 모두는 목조구조를 바탕으로 기와를 얹어 만든 건물들이다. 목조와 기와를 사용하면서 각 분야의 장인들과 함께 대화하며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일본의 지역성과 모더니즘 공간의 만남을 볼 수 있다.



코우류우치의 주택



키노사키의 주택

▶ 「사이를 연결하다」는 주택의 가운데에 사이공간이 되는 틈 혹은 중정을 만들어 놓고 있다. 주택의 공간을 중앙을 가르는 틈새공간을 만들어 놓은 코우료오치(廣陵町)의 주택을 두고 건축가는 '화장실을 갈 때 조차도 밖으로 나가야 하는 그 불편함이 바로 이 집의 즐거움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주택의 공간들을 나누고 빈 공간으로 다시 이들을 엮는 작업을 통해 주택공간의 의미들에 대해 재해석을 하고 있다. 「피막으로 감싸다」의 테마에서는 말그대로의 피막에 의한 외관의 변화와

(히노시타 상점), 중심과 그 주변부의 구조를 이루며, 주변부의 공간이 피막을 이루는 주택의 구성(키노사키의 주택)을 선보이고 있다. 이 테마에서 보여지는 주택들은 그 규모가 비교적 상당한 크기를 갖고 있다는 점도 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커다란 공간에서 피막에 주목하였다는 점은 아이러니한 점이기도 하면서, 거대한 공간에 다양한 변화를 주고 이들을 한데 묶는 작업이나 거대한 공간에 중심을 만들고 주변부를 계획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다.

「장을 읽는다」에서는 장소의 특성, 내지는 컨텍스트가 그 주제로, '하마마츠의 주택'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여기 있던 것처럼 마을에 흡수되게 하고 싶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메가미야마(目神山)의 주택'은 산 속에 자리잡은 주택으로 '숲 속에 자리잡았다고 해서 반드시 자연에 동화되어야 좋은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라고 건축가는 말하고 있다. '텐진바시(天神橋)의 주택'은 도시 속에서의 공동주택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담고 있다. 작가는 이 공동주택을 통해서 '도시 속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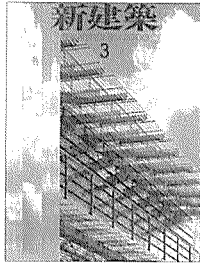
▶ 대담은 기와의 장인 아마다 슈지, 석공인 이즈미 마사토시, 불자이자 건축가인 타카구치 야스유키, 건축가 나카타니 테이치와 이루어졌다. 건축가와 다른 분야의 전문가와의 대담은 장인으로서의 각 전문가들이 건축이라는 장에서 서로 만나며 협력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 타케하라 요시지는 1948년생으로, 1972년 오오사카 공업단기대학 건축학과를 졸업한 후 실무활동을 하면서 여러 건축상을 수상한 후 현재 오오사카 시립대학 건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신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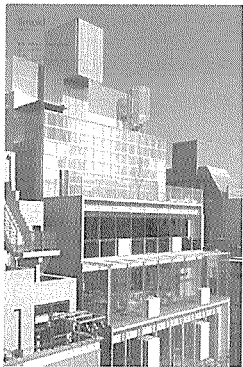
2000년 3월호

이번호의 작품 소개는 코지마 카즈히로(小嶋一浩)와 코이즈미 마사오(小泉雅生)/C+A의 '빅하트出雲(공



연예술과 갤러리의 복합건물)', 아리마 히로유키(有馬裕之) + Urban Fourth의 'limpid(상업건물)', 나가쿠라 타케히코(長倉威彦)의 구시카와(具志川)난(蘭)센터, 오까가와 미츠구(岡河貢)의 무카이시마(向島)프리즘 파빌리온, 반 시게루(坂茂)의 아이비 스트럭처(주택) 등이 소개되었다.

■ 작품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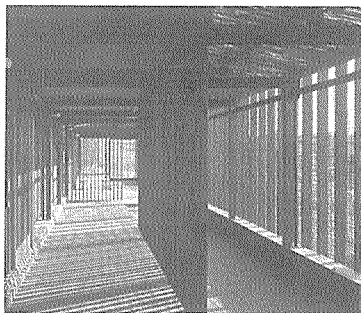


아리마 히로유키 + Urban Fourth
limpid

▶ 이번 호에 소개된 건축가와 그 작품들을 보면 이름이 널리 알려진 작가보다는 국내에는 이름이 낯선 작가들의 완성도 높은 작품들이 주로 소개되고 있다. 작품들의 경향들을 보면 유리와 철골소재(주로 흰색으로 도색된)를 주된 모더니즘과 하이테크의 경향을 섞어놓은 듯한 작품들, 꾸준히 소개되고 있는 목조구조를 바탕으로 한 작품들, 그리고 절제된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는 4-5층 규모의 작은 상점 건축들이 있다.

▶ 아리마 히로유키(有馬裕之) + Urban Fourth의 'limpid', 오까가와 미츠구(岡河貢)의 무카이시마(向島)프리즘 파빌리온'의 제목에서 나타나는 'limpid(투명한)', '프리즘'과 같은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유리소재의 가능성을 주요 공간적 테마로 하고 있는 작품들을 볼 수 있다. 반 시게루(坂茂)의 아이비 스트럭처(주택)와 나가쿠라 타케히코(長倉威彦)의 구시카와(具志川)난(蘭)센터는 부분적이지만 하이테크 건축에서 사용되는 철골구조를 외부로 드러내고 외벽은 유리를 사용하고, 이와같은 부분과 닫혀진 벽들로 이루어진 부분들을 조합해 가면서 공간을 만들어 내고 있다.



야스다 히로미치 '농가의 연속공간'

▶ 목조구조를 바탕으로 한 건축들은 꾸준히 일본에서 제작되어 소개되고 있는데, 야스다 히로미치(安田博道)의 '농가의 연속(緣側)공간'이라는 제목을 붙인 시즈오카의 한 주택의 증축은 눈여겨 볼 만 하다. 시골의 한 주택의 도로를 면한 전면부에 우리나라의 행랑채와 같이 긴 건물을 증축하였는데, 벽면을 오픈시켜 발을 설치하여 동양적인 투명성을 만들어내고, 긴 공간에는 회랑, 작업장, 욕실 등의 공간이 마련되었다. 반투명한 이 건물은 주택의 본체와 길을 차폐시키면서 시각적 투명성을 어느정도 유지시키고 있다. 이 밖에도 쿠로카와 테츠로(黒川技樂)의 린센기라쿠(臨川技樂)는 수려한 계곡변에 세원진 목조의 게이트볼 코트의

지붕으로서 '3교점 라멘 구법'을 사용, 접합부는 철제를 사용한 목조구조물이다. 와카마츠(若松)와 룩풍기(六本木)의 '타마카와(玉川)지역활성화센터'는 목재와 노출콘크리트를 혼합한 구조물을 선보이고 있는데, 벽체는 콘크리트로, 지붕은 목조로 처리하고 있다.



손 탁 플랜 '자랑'

▶ 목조구조물 외에도 꾸준히 소개되고 있는 것이 모더니즘과 일본의 지역적 감수성이 드러나는 작은 상업용 건축물이다. 손 탁 플랜의 '자랑(JÅRANG)빌딩'은 각기 다른 식당들로만 이루어진 5층 높이의 건물로서, 외부에 마련된 공용통로(계단)으로 각 층이 연결되며, 내·외부의 공간 모두 슬리드와 보이드의 구성으로 간결하면서도 통일감 있게 꾸며내고 있다. 타케나카(竹中) 코퍼레이션의 '카이운도우(開運堂) 본점'은 일본 전통 과자점의 본점답게 일본의 지역성이 물씬 풍기는 외관으로 꾸며지고 있다. 일층의 매장과 2, 3층의 사무실을 개방된 공간과 차폐된 공간으로 확연히 대조시키면서 기업의 이미지를 확실히 표현하고 있는 디자인이 이루어졌다.

■ 기사

이번 호에 특별히 다루어진 기사로는 (가칭)아오모리(靑森)현립미술관 설계경기에 대한 결과발표가 게재되었다. 1등에는 아오키 준(靑木淳)의 계획안이 당선되었다.